

Handball

핸드볼코리아

2022년 7·8월 제59호

KOREA

U18 WORLD CHAMPIONS

세계를 홀린 '리틀 우생순'
한국, U-18 세계여자핸드볼 우승 쾌거





변화된 세상의 중심에
SK하이닉스의 첨단 반도체가 있습니다

생활 속 IT기술, 비대면 서비스, 첨단 인공지능까지
언택트 시대에도 그 중심엔 첨단 반도체가 있습니다

Handball

핸드볼코리아 KOREA

C O N T E N T S

2022년 7·8월 제59호



02	U18 WORLD CHAMPIONS 세계를 홀린 '리틀 우생순' 한국, U-18 세계여자핸드볼 우승 쾌거	26	PRISHTINA 2022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은 한국 대학핸드볼 2022 FISU 핸드볼 월드컵 결산
08	'The Steal' 한국 우승을 만든 4가지 결정적 순간들	28	U-LEAGUE 한국체대는 계속 날고, 원광대는 계속 빛났다 2022 대학핸드볼 통합리그 결산
10	INTERVIEW 누군가 한국 핸드볼의 미래를 묻거든... 김진영	32	BEACH HANDBALL 동남아시아게임 세미나에서 발견한 무한한 가능성 비치핸드볼, 뜨거워질 준비는 마쳤다
14	SPECIAL 확 바뀐 여자핸드볼대표팀 라스무센 감독과 함께 재건 시동	36	HANDBALL ACADEMY 국제심판 첫발 내딘 권진수·김도용 심판의 꿈과 도전
18	TACTICAL NOTE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 위기의 주니어 대표팀, 돌파구는 있을까	38	TEAM '우승후보'라는 말은 이제 그만! 이제는 반송초 시대!
20	REVIEW 잊지 못할 명승부, 뜨거운 안녕 제19회 태백산기 리뷰	40	NEWS & READERS COMMENTS 핸드볼 뉴스 및 독자의견



세계를 홀린 ‘리틀 우생순’ 한국, U-18 세계여자핸드볼 우승 쾌거

한국 18세 이하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세계를 제패했다. 한국은 8월 11일(한국시간)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열린 제9회 세계여자청소년핸드볼선수권대회 결승에서 덴마크를 31-28로 물리치고, 비유럽 국가 최초로 세계여자 청소년선수권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여자 핸드볼이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1988년과 1992년 올림픽, 1995년 세계선수권(성인), 2014년 20세 이하 세계선수권에 이어 이번이 통산 다섯 번째다.

글. 김동찬 연합뉴스 기자 사진. 국제핸드볼연맹(IHF)

WINNERS



‘핸드볼 본고장’ 유럽팀 상대로 8연승 비유럽 국가 최초 우승 새 역사 썼다

김진순(인천비즈니스고) 감독이 이끄는 18세 이하(U18)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7월 27일 북마케도니아를 향해 출국했을 때만 하더라도 우승까지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18세 이하 대표팀이 최근 두 차례 세계선수권인 2016년과 2018년 3위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유럽세가 워낙 강한 핸드볼 종목의 특성상 4강에만 진출하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봐도 무방한 분위기였다.

특히 한국 여자 핸드볼이 최근 국제 무대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기대치가 더 낮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 여자 핸드볼은 2012년 런던 올림픽 4강, 20세 이하 주니어 세계선수권

에서 2014년 우승을 차지한 것을 마지막으로 내림세를 면치 못했다. 성인 대표팀의 경우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올림픽 사상 최초로 조별리그 탈락의 쓴잔을 들었고, 자존심 회복을 버르고 나간 지난해 도쿄올림픽에서는 8강에 들었지만 세계 정상급 국가들과 현격한 기량 차이를 확인하며 한계에 부딪혔다. 또 20세 이하 주니어 대표팀은 올해 7월 초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에서 32개 참가국 중 19위에 머물렀다. 1977년 창설된 20세 이하 세계선수권에서 우리나라는 한 번도 10위 밖으로 밀린 적이 없었는데 역대 최악의 성적에 그쳤다.

이런 흐름 속에 세계선수권에 나간 18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은 사실 대진운도 좋지 않았다. 개최국 북마케도니아가 속한 B조는 이란, 세네갈, 우즈베키스탄 등 비교적 약한 나라들이 몰려 있었고, D조의 경

우도 이집트, 크로아티아, 카자흐스탄, 인도 등 수월한 조 편성이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스위스, 독일, 슬로바키아 등 유럽 3개국을 상대해야 하는 쉽지 않은 조에 들어갔다. 조 2위까지 결선 라운드에 진출하기 때문에 F조에서 전력이 앞서는 독일에 패하고, 남은 스위스나 슬로바키아전에서 한 번이라도 빼앗히면 그대로 탈락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대표팀은 스위스와 1차전을 32-28로 승리한 뒤 독일과 2차전까지 34-28로 이기면서 급격한 상승세를 탔다. 유럽의 강호들을 연파하며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한국은 슬로바키아와 조별리그 3차전까지 34-30으로 이겨 3연승으로 결선 리그에 진출했다. 결선리그에서 만난 나라는 역시 유럽의 강호들인 루마니아와 네덜란드였다. 무엇보다 우리 대표팀은 이번 대회 출전한 선수들의 평균 신장이 168cm로, 170cm 대 중반인 유럽 팀들과 차이가 크게 난 것이 가장 불리한 점이었다. 몸싸움이 치열한 종목의 특성상 체격의 격차는 좀처럼 극복하기 쉽지 않은 문제였다. 그러나 우리 선수들은 루마니아, 네덜란드에도 연달아 2골 차 승리를 따내며 8강으로 순항했다.

스피드+패스+조직력 삼박자 한국 핸드볼에 매료된 유럽 팬들

대회가 진행될수록 한국 팀의 인기는 날로 높아졌다. 국제핸드볼연맹(IHF)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팀의 인기를 조명하는 기사를 실었을 정도였다. 현지 팬들은 물론 노르웨이, 독일,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등 유럽 대표 선수들까지 관중석에서 한국을 응원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작은 선수들이 빠른 스피드를 앞세워 절묘한 패스워크와 현란한 스텝 등으로 유럽의 장신 군단을 무너뜨리는 모습에 매료된 결과였다. 8강 상대 스웨덴은 평균 신장이 175cm를 넘을 정도의 장신이었지만 한국은 33-27, 비교적 여유 있는 승리를 따내고 4강에 진출했다.

4강 상대 헝가리는 우리가 2018년 이 대회 준결승에서 만나 패했던 팀이다. 최근 헝가리 리그에 수준 높은 선수들이 몰리면서 경기력 향상이 두드러진 나라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가 4강, 결승에서 연달아 만난 헝가리와 덴마크는 이번 대회 ‘2강’으로 꼽힌 강팀들이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헝가리와 4강이 우승에 가장 큰 고비가 됐다. 우리나라는 헝가리를 상대로 일진일퇴 공방을 벌인 끝에 30-29, 1골 차로 신승해 결승에 진출했다. IHF가 소셜 미디어에 한국과 헝가리 경기 영상을 올려놓은 게시물에는 외국 팬들의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헝가리가 최강인줄 알았는데 한국이 이기다니’라거나 ‘한국의 조직력이 돋보인다’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결승 상대 덴마크는 2006년 이 대회 결승,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결승 등 주요 고비마다 우리나라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숙적’이었다. 후반 10분 여를 지날 때까지 2골 차로 끌려가 고전하던 한국은 이후 거짓말처럼 승부를 뒤집고 결국 31-28, 3골 차 승리를 거뒀다. 덴마크 역시 평균 신장이 174cm에 이르는 팀이었지만 키 160cm로 우리 대표팀 내에서도 단신인 김민서(황지정산고)가 혼자 9골을 터뜨리며 맹활



약했다. 김민서는 이번 대회 득점, 어시스트 모두 2위에 오르며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이해원(대구체고)과 차서연(일신여고)은 베스트 7에 뽑혔고, 대회 기간 내내 김서진(일신여고), 김가영(인천비즈니스고) 등의 활약도 돋보였다.

투자자와 노력의 결실

한국식 핸드볼이 돌아왔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예상을 뒤엎고 유럽 팀들을 상대로 8연승을 거두며 우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는 IHF의 평가대로 빠른 스피드와 많은 패스, 스텝을 활용한 개인기와 탄탄한 공수 조직력을 꼽을 수 있다. 사실 이런 것들은 한국 여자 핸드볼이 올림픽과 세계선수권에서 성인 대표팀이 우승할 때인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 핸드볼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했다.

한국 여자 핸드볼은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1995년 성인 세계선수권을 제패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며 유럽 팀들의 스피드와 개인기가 많이 좋아졌고, 유럽이 원래 갖고 있던 체격의 유리함과 맞물려 한국 핸드볼 특유의 강점이 조금씩 힘을 잃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두 차례 올림픽에

서 부진으로 ‘한국식 핸드볼’은 유럽을 상대로 더는 경쟁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뚜렷해지기도 했지만 이번 대회 결과는 다시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우선 핸드볼뿐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분야에서 청소년 때까지 탁월하던 국제 경쟁력이 성인 무대로 옮겨가며 그 힘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청소년 대표팀의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이번 우승의 결실을 성인 대표팀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고등학교 팀 수도 10개 남짓으로 적지만 대학 팀은 그보다 더 적은 현실로 인해 20세 안팎의 연령대 선수들의 경기력을 유지 및 발전시킬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대학팀은 팀 수가 부족해 국내 경기를 치를 기회가 많지 않고, 고교 졸업 후 실업으로 직행하면 후보 신세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협회 차원의 투자로 이번 대회 우승 결실을 봤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로 주니어와 성인 대표팀의 동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2019년부터 중고등학교 선수들 체력 측정과 우수 선수 해외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한 협회는 또 핸드볼아카데미를 통해 유럽 강국들과



꾸준히 교류하며 세계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썼다. 올해 5월 남녀 성인 대표팀에 유럽 출신 감독을 선임한 것도 한국 핸드볼의 국제 경쟁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협회의 의지로 풀이할 수 있다. 남녀 대표팀 감독들이 취임 일성으로 ‘한국과 유럽 핸드볼의 강점을 잘 접목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대회를 통해 확인한 한국형 핸드볼의 경쟁력이 성인 대표팀을 통해 잘 구현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우생순의 영광, 이제 시작일 뿐

이번에 ‘유럽팀 상대 8연승 우승 신화’를 만들어낸 18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은 2년 뒤 또 북마케도니아에서 20세 이하 주니어 세계선수권을 앞두고 있다. 올해 20세 이하 주니어 세계선수권에서는 19위에 머물렀지만 이번 18세 이하 우승 주역들이 출전하게 될 2024년 주니어

세계선수권에서 북마케도니아를 ‘약속의 땅’으로 만들 수 있을지 기대된다. 또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성인 대표팀이 다시 상위권 경쟁력을 회복한다면 2024년은 한국 핸드볼에 뜻깊은 한 해로 남을 수 있다.

김진순 감독은 1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한 귀국 인터뷰를 통해 “우리 핸드볼이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며 “유럽 선수들이 주니어 때 많이 성장하는데 우리 선수들도 앞으로 체력을 더 키우고, 서로 협동하는 핸드볼을 꾸준히 연습하면 잘 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의 기량 향상을 응원했다.

MVP를 받은 김민서 역시 “외국 팬들과 선수들의 응원을 받으며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경기했다”고 뿌듯해 하며 “앞으로 (성인)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에도 나가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뛰는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





‘The Steal’ 한국 우승을 만든 4가지 결정적 순간들

스포츠에서는 순간의 판단이 결과를 바꾸곤 한다. 특히 결승전과 같은 큰 경기의 결정적인 순간 터져 나오는 ‘클러치 플레이’는 팬들을 열광시킨다. 8월의 잠 못 이루는 새벽에 한국 핸드볼 팬들에게 꽤 오랜 시간 회자될 만한 순간들이 가득한 경기가 펼쳐졌다.

글. 김희수 기자 사진. 국제핸드볼연맹(IHF)

8월 11일(한국시간)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열린 국제핸드볼연맹(IHF) 세계여자청소년핸드볼선수권대회 결승에서 한국이 덴마크를 31-28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김민서가 9득점(슛 성공률 69%), 이혜원이 7득점(78%)으로 공격을 이끌었고, 골키퍼 김가영도 고비마다 귀중한 선방을 만들어내며 승리에 일조했다. 덴마크는 줄리 스칼리오네가 10득점으로 분전했으나 슛 성공률 48%에 그쳤고, 2분 퇴장까지 한 차례 당하면서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다. 이번 결승전은 전반이 15-15 동점으로 끝났을 정도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경기였다. 그렇기에 더욱 짜릿한 우승이었다. 60분의 혈투 속에서 한국의 우승을 만든 4가지의 결정적 순간들을 시간 순으로 돌아본다.

상대의 계획을 꼬이게 만든다(전반 6분)

덴마크가 한국을 상대로 내세울 수 있는 최대 강점은 피지컬이었다. 덴마크는 특히 수비 상황에서 거친 플레이를 구사하며 피지컬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한국은 이를 역으로 파고들었다. 덴마크 수비진의 빈 공간을 스피드로 공략하면서 반칙을 유도했다. 전반 6분 김민서의 패스를 받아 코트 좌측 공간을 파고드는 김지아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덴마크의 이다 니엘센은 김지아의 옷을 잡아 넘어뜨렸고, 옐로카드를 받음과 동시에 7m 드로우를 헌납했다. 그 직후에도



니엘센은 김민서에게 비슷한 반칙을 재차 저지르면서 7m 드로우를 또 다시 내줬고, 경기 초반 한국에게 리드를 헌납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날 덴마크는 총 3개의 옐로카드를 받으면서 수비 과정에서 계획보다 위축된 플레이를 펼칠 수밖에 없었다. 덴마크의 계획이 초반부터 꼬인 순간이었다.

무득점의 늪에서 탈출한 빠른 전환(전반 26분)

결승전에서 한국에게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전반 21분부터의 5분여 간이었다. 한국은 21분 11-11 동점 상황에서 스칼리오네에게 롱 슈트를 허용하며 1점차로 끌려가기 시작했다. 다시 점수를 뒤집기 위해 이혜원-차서연의 오른쪽 라인을 주요 루트로 공세에 나섰지만, 계속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며 고전했다. 되려 덴마크의 여유로운 플레이에 실점하며 점수 차가 계속해서 벌어졌고, 한국은 거의 5분여의 시간 동안 무득점으로 묶였다. 위기 탈출의 핵심은 빠른 방향 전환이었다. 계속된 한국의 우측 공격에 덴마크 수비진의 신경이 우측으로 쏠린 틈을 타, 좌측 공간을 호시탐탐 노리던 김지아에게 김민서가 빠르게 패스를 찔러줬다. 빈 공간에 손쉽게 입성한 김지아는 채지 있는 로빙슛으로 득점을 올리며 한국을 무득점의 늪에서 건져 올렸다. 가라앉은 분위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소중한 득점이었다.

‘The Steal’(후반 14분)

후반 14분, 이날 결승전의 단연 하이라이트였던 플레이가 터져 나왔다. 22-22 동점 상황에서 덴마크의 공격 작업 도중, 앤 요한센이 볼 간수를 다소 안일하게 하는 틈을 김서진이 놓치지 않았다. 득달같이 달려들어 요한센의 볼을 스틸했고, 튀어 오른 볼을 김지아가 낚아채 상대 코트에 쇄도하는 김서진에게 정확하게 찔러줬다. 골문 앞까지 무혈 입성한 김서진은 깔끔한 로빙슛으로 득점까지 스스로 만들어냈다. 이 점수로 23-22 역전에 성공한 한국은 이후 경기가 끝날 때까지 한 차



레도 리드를 내주지 않았다. 농구 등의 구기 종목에서 팬들은 사실상 경기의 승패를 확정짓는 결정적 플레이에 ‘The’를 붙여 부른다. ‘The Shot’이나 ‘The Pass’와 같은 것이 그 예이다. 김서진의 스틸은 그야말로 ‘The Steal’이었다.

추격의 의지를 무너뜨린 선방(후반 23분)

김서진의 득점으로 앞서간 한국이었지만, 점수 차를 크게 벌리지는 못하면서 경기의 긴장감은 계속해서 유지됐다. 27-24로 한국이 앞선 후반 23분, 덴마크의 날카로운 공격 작업이 나왔다. 스칼리오네-요한센-니엘센의 삼각 편대가 패스를 주고받다가, 볼을 잡은 요한센이 피지컬을 앞세워 김지아의 수비를 무력화시켰다. 완벽한 1:1 찬스가 열렸고 요한센은 까다로운 바운드 슈트를 구사했다. 그러나 김가영이 발끝으로 엄청난 선방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담담한 표정으로 벤치를 향했다. 백코트를 하는 요한센의 일그러진 표정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덴마크의 추격 의지가 꺾이는 순간이나 다름없었다.

이후 한국은 김민서가 마치 축포를 터뜨리듯 여유로운 공격을 펼쳤다. 어느덧 60분이 모두 흘렀고, 31-27로 경기가 종료되었다. 선수들과 코칭스태프들은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다. 한국이 정상에 오르는 순간이었다. 🌐



누군가 한국 핸드볼의 미래를 묻거든... 김진영



김진영. 경희대 시절 제법 촉망받긴 했으나, 평범한 유망주 중 하나였던 그는 어느 날 불현듯 스페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그는 이제 한국 핸드볼의 미래를 논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판타스틱 영건으로 자리매김했다. 무엇이 그에게 독기를 풀었을까? 무엇이 이역만리의 그를 버티게 했을까? 김진영은 오늘과 내일 무엇을 위해 될까?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라고 했던가. 우리 시대의 누군가가 한국 핸드볼의 미래에 대해 묻는다면 우리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김진영(스페인 아테마르 레온)을 가리킬 수 있게 됐다. (인터뷰는 7월 18일 진행됐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유용우 기자



유럽진출 첫 시즌, 희망과 과제 동시 확인

Q. 스페인리그 진출 후 첫 시즌을 마쳤습니다. 첫 시즌을 돌아보면 어땠나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모든 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운동 시스템을 접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스페인만의 문화를 느끼면서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Q. 스페인리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자유분방하다고 할까요. 가장 독특하다고 느꼈던 점은 경기 끝나고 라커룸에서 선수들 전체가 맥주를 마시는 문화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래도 되는건지’ 하며 적응이 안 됐어요(웃음).

Q. 스페인리그와 현재 뛰고 있는 아테마르 레온에 대해 소개를 해주다면요.

아테마르 레온은 대부분 어린 선수로 포진돼 있어요. 지난 시즌에는 7위로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고 어린 선수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Q. 지난 시즌 자신의 활약상에 대해서는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한 것 같고, 팀원들과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다만, 경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피지컬, 수비, 전술 등 여러 면에서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Q. 데뷔 시즌, 팀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았나요?

공격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물론 출전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코트에 나설 때면 속공이나 1대1 공격 등 제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Q. 데뷔 시즌 치르면서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요.

한 시즌을 돌이켜보면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고 실수도 종종 보이곤 했는데 리그 최종전인 바르셀로나 전만큼은 달랐어요. 그날 경기 선발 출전해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줬던 것 같아요. 시즌 마무리를 잘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Q. 훈련 방식이나 시스템에서도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스페인에선 체력 훈련이 적은 대신 전술 훈련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훈련도 실전처럼 해서 굉장히 격하고 몸싸움도 많이 발생해요. 이외에 훈련 시스템 자체도 한국과는 다른 면이 많아요.

Q. 마늘로 카데나스 감독은 어떤 분이신가요.

굉장히 엄하신 분이예요. 선수들의 실수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세요. 작은 실수를 하면 항상 크게 소리 지르면서 집중하라고 독려해주세요. 사실 첫 시즌에는 감독님께서 저한테 소리 지른 기억 밖에 나지 않네요. 그렇지만 핸드볼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 진심인 것 같아요.

Q. 스페인리그 진출하기 전부터 피지컬에 대한 부분이 약점으로 지적됐어요. 직접 겪어보니까 어땠던가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선수들이 저보다 몸집도 크고 피지컬이 좋다보니 저로서는 힘들게 느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과 맞붙어 보니까 몸싸움 면에서 점점 느는 점도 느껴지더라고요. 또, 제가 팀원들 중에서는 발이 빠른 편이니까 스피드를 활용해 이 같은 약점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Q. 스페인 생활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경기적으로는 피지컬적인 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꼈고 또 한 시



김진영
생년월일
 2000.02.02
신장/체중
 184cm/78kg
출신교
 진천상산초-진천중-청주공고-경희대
소속팀
 아데마르 레온
포지션
 라이트백/라이트윙

즌을 뛰어보니 수비능력을 더 향상시켜야겠다는 것을 몸소 느꼈어요. 요즘에는 전세계적으로 공격과 수비, 두 가지 모두 능한 선수들이 가 치가 높아요. 생활적으로는 아무래도 언어적인 부분이 조금 힘들었어 요. 지금도 쉴 때마다 영어와 스페인어를 조금씩 병행해가면서 공부 하고 있습니다.

Q. 20대 초반의 또래 선수들이 많은데, 누구와 가장 가깝게 지냈나 요.

아드리아누 선수라고 있어요. 저와 동갑인데 원정 경기를 가면 같은 방도 쓰고 주말에 쉴 때는 같이 놀러도 다니면서 많이 친해졌어요.

Q.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많이 생각날 법도 했을 텐데요.

스페인 생활에 잘 적응하고 동료들과 잘 지냈지만 한국에 있는 가족 들이 그리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누나까지 가족들이 버팀목이고, 든든한 존재들이죠.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번씩 가족들과 연락하면서 안부를 주고 받는게 저한테는 엄청난 동 기부여가 됐어요.

Q. 스페인의 핸드볼 인기는 어떤가요.

한국과는 다르게 관중석 곳곳 빼곡히 꽉 차 있었어요. 사실 그런 모습 들을 보면서 많이 부러웠어요.

Q. 사실 김진영 선수의 해외 진출은 핸드볼계에 깜짝 놀랄만한 이슈

였어요. 만약 경희대 시절로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내렸을까요.

(단호하게)네.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아직 은 새로운 리그에 적응하고 이룬 것도 없지만 제가 선례를 남기게 된 다면 앞으로 더 많은 후배들이 해외 무대에 도전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 더 노력하고 한해 한해 발전하면서 후배들로 하여금 부끄럽 지 않은 선배가 되고 싶어요.

한국 핸드볼 미래를 빛낼 ‘판타스틱 영건’

Q. 성인대표팀에 발탁된지도 어느 덧 2년이 넘었어요. 그중에서도 성 인대표로 처음 국제무대에 나섰던 2020년 아시아선수권대회 일본 과 4강전 경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당시 승부에 썩기를 막는 득점 포는 아직도 인상에 남고 있어요. 자신에게도 뜻깊은 기억인 것 같은 데요.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예요. 특히 일본이랑 하면 항상 이겨 야겠다는 마음으로 뛰어요. 2018년 아시아 주니어선수권 결승전 때 도 마찬가지로였고요. 주니어선수권 일본 전 승리를 거두고 우승했을 때 는 감격에 겨워 애국가 나올 때 동료들끼리 펄펄 눈물을 흘린 것도 생

생히 기억에 남네요.

Q. 대표팀 생활에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됐나요.

처음 대표팀에 합류했을 때 위에 형들께서 이것저것 다 알려주시고 조 언해주신 덕분에 대표팀 생활에는 잘 적응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저는 대표팀에서 막내 속에 속해요. 겸손함을 잃지 않고 막내로서 형 들을 잘 따라가려고 합니다.

Q. 공교롭게도 고향이 진천이에요. 집에서 선수촌은 가깝나요.

선수촌에서 15~20분 거리에 집이 있어요. 한번씩 외출이 주어지는데 집이 선수촌에서 가깝다보니 왔다갔다하기가 엄청 편해요.

Q. 이번 대표팀에서는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프레이타스 감독과 함 께 하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1년 간 스페인 생활을 하면서 해외 지도자를 경험해본 게 적응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팀에 합류한지 아직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언어적 인 면에서 확실히 해외 생활 1년 한 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듣기 어려운 단어도 다른 선수들보다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Q. 프레이타스 감독은 선수들에게 어떤 점을 가장 강조하는 편인가 요. 감독님의 지도철학이 있다면요.

전술적으로는 수비적인 부분에 많이 강조하세요. 그리고 훈련 중에는 속공 플레이도 크게 비중을 두고 연습하 고 있습니다.

Q. 감독님께서 유럽식 핸드볼과 스피드 있는 한국식 핸드볼을 접목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셨어요. 두 가지를 접목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제가 공격할 때는 자유롭게 하라고 하 시면서 프리롤을 부여해주시고 있 어요. 또, 스피드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제가 선호하는 속공 플레이를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다만, 아직 수비 능력이 많이 부족한 편인데 감독님이 바라시는 기대치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완하려고 해요.

Q. 내년 1월에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를 목표로 대표팀 훈련에 한창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 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팀원들과 호흡을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 래 부상당하지 않고 대회까지 몸상태를 잘 유지하 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Q. 지난해 아쉽게도 도쿄올림픽 출전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파리올림픽에 대한 간절함, 기대감이 더 를 것 같아요.

올림픽은 모든 선수들이 꿈꾸는 무대잖아요. 올 림픽에 출전하게 된다면 엄청난 영광일 거 같아

요. 하지만 대표팀 기회는 쉽게 찾아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언제나 최선 을 다해야하고, 자기 할 일에 충실해야 해요.

Q. 다른 국가들 경기도 보는 편인가요. 해외 핸드볼 강국들 중에 어 떤 국가의 핸드볼 스타일을 선호하는 편인가요.

프랑스 선수들의 경기를 가끔 챙겨봐요. 선수들 대부분이 힘이 좋고 팀 컬러도 다이내믹해서 눈길이 가더라고요.

Q. 자신에게 태극마크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자부심 그 자체예요. 처음 대표팀에 뽑힐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감사함을 갖고 있어요.

Q. 이전 인터뷰에서는 롤 모델이 없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유효한가 요.

아직도 딱히 롤 모델이라고 할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냥 제 주위에 있 는 형들을 보면서 따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 선수가 잘 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보고 배워야지’가 제 마인드예요. 음 한해 한해마다 롤 모델이 바뀌는 느낌일까요. 선수마다 각기 다른 장점들을 흡수하고 싶어요.

Q. 김진영 선수를 보고 많은 이들이 핸드볼계의 미래라 고 말합니다.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김진영 선수의 이름이 종종 언급되고 있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다 어때요.

저에 대해 좋게 봐주시니 당연히 감사하죠. 하지만 때로 는 부담이 되기도 해요. 아직은 제가 부족한 점이 많기 때 문에 최대한 생각을 안 하고 제 플레이에만 신경을 쓰려 고 해요.

Q. 훗날 김진영 선수는 팬들에게 어떤 선수로 남고 싶나 요.

음...거창한 목표보다는 ‘김진영 하면 항상 운동도 잘하고, 매 경기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남기고 싶어요.

Q. 10년 뒤에는 어떤 자리에 서 있을 것 같나요.

핸드볼을 계속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운동을 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여태까지 큰 부상이 딱 히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큰 부상 없이 코트에서 10년, 20년 오랫동안 핸드볼을 하는 게 목표에 요.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 한 번 들어보면서 인 터뷰 마무리할까요.

선배님들께서 그동안 쌓아온 것에 누가 되지 않게끔 저희 후배들이 그 뒤를 잘 따라가고 싶어요. 또, 대표팀이 든 소속팀이든 어느 곳에 있건 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모두 펼쳐보이 고 싶어요. 후배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선 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확 바뀐 여자핸드볼대표팀 라스무센 감독과 함께 재건 시동

여자핸드볼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 그 바람을 이끄는 지휘자는 과거 유럽 최고 명장으로 군림했던 김 라스무센 감독이다.

지난 5월, 대한핸드볼협회는 남녀 핸드볼 대표팀에 사상 최초로 외국인 감독을 선임했다.

여자 대표팀에는 덴마크 출신 김 라스무센을 영입했다. 코치진 역시 모두 외국인으로 꾸려졌다.

이방인이고 선수들과의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지만 그는 소통과 노력, 끈기를 대표팀 선수들에게 심기 위해 밤낮없이 뛰어나다. 과연 그가 최근 다소 주춤했던 여자핸드볼 재건을 이끌 수 있을까. 여자 핸드볼에 새로운 색깔을 입히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는 라스무센 감독의 이야기와 새로운 훈련 풍경을 느끼고자 진천선수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유용우 기자

유럽의 명장

라스무센 감독은 누구?

덴마크 출신의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의 새 사령탑 라스무센 감독은 1972년생으로 유럽 내에서 잔뼈가 굵은 지도자로 통한다. 2010년 폴란드 대표팀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는 헝가리 대표팀을 지도했다. 또 2016년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를 유럽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올렸고, 폴란드 대표팀 시절에는 2015년 세계선수권 4강에 오른 바 있다.

최근에는 2021년까지 몬테네그로 감독을 맡아 도쿄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기도 했다. 대한핸드볼협회는 지난해 도쿄 올림픽이 끝난 뒤 남녀 대표팀에 사상 최초로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스페인 세계선수권 대회 기간 현지에서 후보자를 선정했고, 국제핸드볼연맹(IHF)을 통해 공개 모집 절차를 밟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이후 협회는 감독선임위원회를 구성, 올해 3월부터 온라인 면접 등을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마쳤다. 그 결과

프레타스 감독과 라스무센 감독이 각각 남녀 핸드볼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됐다. 대한핸드볼협회는 “기존 한국 핸드볼과 외국 핸드볼의 장점을 융합해 세계 무대에 도전하겠다는 취지”라고 외국인 감독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

“반드시 성공한다”

새로운 도전에 나선 라스무센 감독의 출사표

‘유럽 최고의 명장’이라 불리던 라스무센 감독은 안정적인 환경을 포기하고 또 다른 꿈을 펼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사실 안정과 도전의 선택지에서 과감히 도전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그는 도전이란 선택을 통해 자신의 이름 세 글자를 전 세계에 알리려 했다. 라스무센 감독은 “한국행은 나에게 도전과도 같다”라며 의미심장한 멘트로 운을 댔 뒤 “나는 성공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부담감은 모르겠다. 참고 견뎌내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풀어주고 싶다. 훗날 내가 임기를 마치고 고국으로 떠날 때 즈음 한국 여자핸드볼이 한 단계 더 발전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한다”라며 소신을 밝혔다.

라스무센 감독은 침체되어 있는 한국 여자 핸드볼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자신하고 있다. 라스무센 감독은 “우리에게도 승산은 분명 있다. 잘 할 수 있는 것을 더 잘 하게끔 준비하는 게 나의 몫이다. 경기를 치르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건 중요치 않다. 지금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건 적응과 시간이다. 선수들이 잘 융화된다면 6개월 뒤에는 분명 다른 위치에 서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다짐했다.

라스무센 감독이 팀 컬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가장 공들이며 신경 쓰고 있는 건 ‘소통’이다. 그는 “하나의 팀이 되어야 한다”라며, “우리는 누구 하나 빠짐없이 매일 힘들게 땀 흘린다. 실책이 나와도 서로를 격려하고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다. 그런 면에서 한국 선수들은 기대했던 대로 아주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하고 있다. 대단히 놀라울 정도다. 둘째는 노력이다. 선수들은 물론 저를 포함한 코칭스태프가 노력하고 연구해야 한다. 또,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필요하다. 프로 선수로서 포기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힘들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여자핸드볼은 최근 몇 년간 번번이 유럽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체력과 체격이 월등하다. 힘의 차이는 말로 설명하기 힘들다. 유럽식 핸드볼에 익숙한 라스무센 감독은 한국식 핸드볼에 유럽식 핸드볼이 접목된 스타일을 추구하려 한다.

말을 이어간 라스무센 감독은 “기본적으로 유럽을 상대할 때도 한국의 핸드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만의 창조적인 플레이, 방향 전환 등을 극대화 하려 한다. 여기에 유럽식 핸드볼이 가미가 된다면 유럽 팀 상대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거라 생각한다. 지금은 적응 중이며 우리만의 색깔을 잘 만들어나갈 수 있다”라고 바라봤다.

오는 9월 있을 한일정기전과 11월 국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선수권 대회는 라스무센 감독에게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라스무센 감독은 “처음 팀으로 실전에 나서는거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 될거다. 당연한 말이지만 상대를 이기는 것이 목표다. 또, 내년에는 올림픽 예선과 세계선수권이 있다. 거기에 맞춰 우리는 하나의 팀이 되어야 한다”라고 원팀(One Team)을 강조했다.

무엇이 달라졌나,

선수들이 전하는 훈련 분위기

보고 배울 게 많고, 리더로 중심을 잡아주며, 같은 팀이라는 것만으로 설레게 한다. 라스무스 감독과 한술밥을 먹게 된 대표팀 선수들의 마음이다. 유럽에서는 잔뼈가 굵은 지도자로 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시아 무대에서 지도자 경험은 없다. 대표팀 선수들은 그럼에도 친근하게, 세세하게 알려주는 라스무센 감독의 부임을 반긴다. 한 달 가량 함께 훈련한 대표팀 선수들은 라스무센 감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주장 류은희는 “확실히 추구하는 색깔은 수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7명 공격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이것저것 다양한 전술을 시도하고 계신다”고 했다.

현재 헝가리리그의 ‘죄리’에서 활약하고 있는 류은희로선 이 같은 유럽 무대 경험이 새 감독 체제에 적응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헝가리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 감독님과 예전에 함께 했던 동료들이 있다. 좋은 분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다. 아무래도 유럽 무대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훈련 방식, 추구하는 방향성도 모두 다르다. 소집 초기라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선수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거라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라스무센 감독은 취임 기자회견부터 “한국은 창의적인 플레이가 장점이다”라며 “북유럽인 스칸디나비아식 코칭 방식과 한국의 장점을 융합해 국제 무대에서 통하는 핸드볼을 만드는 게 목표”라며 두 가지 스타일의 핸드볼을 접목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물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터다.

레프트 윙 조하량은 “아무래도 처음 접하는 지도 방식이다보니 여태 까지 배워온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익숙지 않은 동작과 플레이 등을 주문하셨을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었다”라며, “한국만의 창의적인 스타일과 유럽의 스타일을 접목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적인 핸드볼 트렌드가 스피드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맞춰나가고 있다. 단 기간 내에 효과가 나오지 않겠지만 전지훈련을 거치다 보면 감독님께서 추구하시는 스타일에 적응할 수 있을거라고 본다”라고 했다.

주전 골키퍼 오사라는 “외국인 감독님이 오셨지만 대표팀 훈련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들다(웃음)”라며, “전술적으로는 스피드한 플레이를 기반으로 정확한 패스워크를 강조하신다. 또, 한국식 창의력 있는 플레이와 유럽의 스피드와 파워풀한 스타일을 접목하 시려고 한다. 두 가지를 접목하는게 사실 쉽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선수들 모두가 재밌게 배우려고 한다”라고 전했다.

센터백 강경민도 “기존 한국의 방식은 크게 크게, 세세하게 두 가지로 나뉜다. 라스무센 감독님께서서는 이 두 가지를 복합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혼동이 있다. 세세하게 설명하자면 빠른 패스워크를 통한 세트 플레이를 추구하신다. 아기가기한 것 같으면서도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혼동이 있다. 하루 빨리 감독님의 스타일에 맞추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종목을 불문하고 외국인 감독이 선임됐을 때 선수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건 역시 소통이다. 언어적 한계 때문이다. 하지만 라스무센 감독은 “문제 없다”는 반응이었다. 앞서도 언급했듯, 라스무센 감독은 취임 초기부터 그는 선수들과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선수와 감독 간의 의사소통적인 면에서 약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걸 사전에 인지하고 보완할 방법을 찾았다. 그러면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기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실제 본지가 취재차 진천선수촌 훈련장을 찾아가던 날에도 라스무센 감독은 선수들에게 “힘내”, “좋아” 등 한국말을 섞어가며 살갑게 다가서려고 애썼다. 그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에도 영어를 하는 선수는 없었다. 핸드볼에서 쓰는 용어는 한정적이다. 보디랭귀지도 하면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사라는 “처음 외국인 감독이 왔는데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된다”면서도 “두번째 훈련인데 팀 분위기가 화기애애 하다. 언어 장벽이 있다 보니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감독님께서 적극적으로 한국말 섞어가면서 해줄라고 하시니까 감독님 대하는게 어렵지가 않다. 적극적으로 대할 수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강경민도 “훈련 분위기는 밝고 활기차다. 감독님께서 오히려 그런 분위기를 더 만들어주신다”며 “지난 5월 달에 이어 두 번째 소집인데 의사소통적인 면에서 아직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처음보다 많이 가까워졌고 선수들도 감독, 코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팀 분위기를 전했다.



라스무센 감독이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그가 강조했던 융화가 이뤄진다면 대표팀은 어느 때보다 희망을 가지고 반등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유럽 전지훈련 떠난 대표팀, 팀 컬러 확 바꾼다

라스무센 감독이 지휘하는 대표팀은 7월 21일 유럽 전지훈련을 떠났다. 대표팀은 덴마크와 헝가리에 각각 한 달간 전지훈련 캠프를 차린다. 진천선수촌에서 진행된 1차 훈련에서 조직력을 다지는 데 중점을 뒀다면, 유럽 전지훈련에선 유럽의 강호 클럽들과 합동 훈련을 통해 대표팀만의 팀 컬러를 본격적으로 입혀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유럽 클럽은 총 5개 팀이 대표팀의 훈련 파트너로 참여한 가운데 이들과 연습경기를 갖기도 했으며 이중에서는 지난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 팀 메츠(프랑스)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라스무센호가 이번 유럽 전지훈련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는 명확하다. 축구에 ‘공한 중’이 있었다면 핸드볼에는 ‘공유중’이 있었을 정도로 대표팀은 그동안 유럽 팀들에 고전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여자핸드볼이 옛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유럽은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다. 라스무센 감독 역시 여자 핸드볼의 반등 전제조건을 두고 “유럽팀을 넘어서야 한다”며 유럽팀을 겨냥했다. 유럽 팀 공략을 위한 자신감을 쌓는 기회, 이번 유럽 전지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우미희 대표팀 전력분석관은 “9월, 한일 정기전을 앞두고 있지만 사실 이번 유럽 전지훈련은 유럽 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유럽 팀을 상대로 얼마나 자신감을 쌓을 수 있느냐가 이번 전지훈련의 핵심 포인트”라고 유럽 전지훈련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어 “메츠 팀에서는 라스무센 감독님과 연이 있기도 해 먼저 우리에게 훈련을 하자고 제안했

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확실히 선수들이 선진클럽의 훈련 시스템을 보고 느끼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다”라고 전했다.

라스무센 감독이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공들이며 신경 쓰고 있는 건 첫째도 둘째도 수비다. 특히 핸드볼에서는 ‘골키퍼가 팀의 절반을 차지한다’라는 말처럼 골키퍼는 공격의 시작이며, 수비의 최종 방어선인 중요한 자리이다. 이번 대표팀 골키퍼는 베테랑 오사라와 박새영, 막내 정진희로 구성됐다. 오사라와 박새영은 리그에서 이미 최고 자리에 올라선 선수들이다. 정진희는 2021년 세계선수권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며 국제 대회 경험을 쌓았다. 라스무센 감독은 세 골키퍼 선수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우미희 분석관은 “감독님께서 일단 수비에 포커스를 두고 훈련을 지휘하신다. 필드플레이어들의 수비력도 좋아졌지만 골키퍼들의 기량이 부쩍 성장한 것 같다. 훈련에서부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것보다는 이 훈련을 왜 해야 하는지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해주신다. 특히 이번 유럽 전지훈련에선 막내 정진희 선수의 기량이 많이 올라왔다. 과감해졌고 수비력도 좋아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수들도 확실히 진천선수촌 훈련 때와 비교했을 때 감독님의 스타일에 빠르게 녹아들고 있다”라며, “한 가지 놀라운 훈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금은 하루에 많아야 2~3시간이다. 단 시간에 최대 효과를 뽑아내고 있다. 그러면서 선수들의 집중력도 더 높아지고 체력도 더 좋아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또, 유럽 지도자 특성상 교체가 잦은데 유럽팀과 연습경기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드러났다. 선수가 조금이라도 힘든 기색을 드러내면 바로 바꿔주시고 뛰는 시간이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딱딱 정해져있다. 아무래도 여러 선수들이 골고루 코트에 투입되다 보니 선수들 간의 선의의 경쟁심도 생기고 있다”라고 바뀐 변화들에 대해 설명했다. 🌐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 위기의 주니어 대표팀, 돌파구는 있을까

한국 남녀 주니어 대표팀이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

여자 주니어팀은 제23회 세계여자주니어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19위에 머물렀고, 아시아선수권대회 2연패를 노리던

남자 주니어팀도 5위에 머무르며 4위까지 주어지는 2023년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티켓 획득에 실패했다.

특히 여자대표팀 성적은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출전 사상 가장 낮은 순위다. 실망스러운 결과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희망도 발견할 수 있었다.

글. 우미희 대한핸드볼협회 전력분석관 사진. 국제핸드볼연맹(IHF)



저조한 성적 속 여자 대표팀의 미래 찾았다

여자 주니어(U20) 대표팀이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슬로베니아 첼레에서 열린 23회 세계여자주니어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32개 참가국 가운데 19위에 머물렀다. 대회 개막전부터 한국을 비롯해 노르웨이, 프랑스, 브라질이 속한 D조는 죽음의 조로 평가됐다. 노르웨이와 프랑스, 한국 모두 이 대회에서 메달을 딴 적이 있는 강호였다. 한국은 출발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노르웨이와 첫 경기에서 22-26으로 4점 차로 패했다. 프랑스와의 2차 전에서는 21-34로 완패했다. 2패를 떠안은 한국은 16강 결선리그 진출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브라질과의 한 경기를 꼭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예선 마지막 경기에 임했다. 28-22 승리로 예선 성적 1승2패를 거뒀다. 한국은 순위결정전으로 추락했다. 이탈리아전(35-28), 아르헨티나전(38-23), 폴란드전(26-28), 슬로바키아전(36-31)로 3승1패를 기록,

최종 19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팀 성적은 저조했지만, 선수들의 활약은 희망적이었다. 특히 이연송(한국체대)과 지은혜(부산시설공단)는 대회 전체 득점 6위와 8위에 이름을 올리며 슈터로서 면모를 보여줬다. 센터백 이연송은 7경기 동안 47점을 몰아쳤다. 키는 작지만 빠른 발과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실새 없이 코트를 누비며 득점을 쌓았다. 이연송은 주니어 대표팀에서 활약을 기반으로 성인 대표팀에도 차출되며 막내로서 팀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돌파력이 돋보이는 지은혜(44득점) 역시 다양한 슈팅을 구사하며 미래 왼손잡이 에이스로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빠른 속공과 과감한 슈팅을 보여준 이원정은 윙에서 13점을 올렸다.

골키퍼 이가은(인천시청)은 수비라인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골문을 지켜냈다. 조별예선에서만 31% 선방률이었다. 리바운드와 더불어 경기 후반부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아쉬움으로 남았으나, 경험이 쌓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이한주(인천시청)도 비록 득점은 적었지만 이연송과 함께 팀 내 어시스트 1위를 기

록하며 앞으로 활약을 기대케했다.

한국은 대회 전부터 암초를 만났다. 피봇 정유희가 헝가리에서 열린 컵대회에서 예상치 못한 부상을 당한 것. 대회 내내 피봇 포지션에서 공격의 중심을 잡아주지 못했고 수비에서도 자주 흐트러지는 모습을 노출한 게 한국의 발목을 잡았다. 코로나 여파로 2020년 주니어대회가 취소되고 청소년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등에 불참하면서 국제 무대 경험이 부족한 것도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주니어 대표팀이 함께 호흡을 맞춰 훈련한 기간은 2주 남짓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19위의 성적표는 아쉬운 결과임이 분명하다.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그간 스피드를 살려 돌파에 의한 공격을 많이 해왔다. 피지컬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렇지만 돌파 일변도의 슈팅은 공격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의 슈팅 득점률은 60% 이상이었다. 하지만 중거리슛 득점률은 25%(14/56)에 그쳤다. 외곽에서 슈팅을 살릴 필요가 있다. 다양한 공격 전개를 찾는 것이 한국 핸드볼이 살 길이다.

중동 넘지 못한 남자 대표팀, 최선 다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남자 주니어(U20) 대표팀은 7월 16일부터 24일까지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린 제17회 아시아 주니어남자핸드볼 선수권대회에서 5위 성적표를 받았다. 직전 대회인 2018년 우승한 한국은 대회 2연패에 도전했지만 조별리그에서 조 3위에 그쳐 4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번 남자 주니어 대표팀(U20) 선수들은 코로나 여파로 국제대회 경험을 쌓지 못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국 선수들과 경기를 펼쳤고, 그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이 속한 A조에는 쿠웨이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가 세 팀이나 포진돼 있었다. 중동 선수들은 거친 몸싸움과 강한 힘을 이용한 플레이를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수비력이 경기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결과적으로 중동팀을 상대로 지공보다는 속공으로, 상대를 따라가는 수비보다는 도움 수비를 펼쳤다면 비교적 여유있는 경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스피드 살린 플레이가 필요했다. 첫 경기 쿠웨이트전도 스피드 있는 경기로 막바지 26-26 동점으로 경기를 마칠 수 있었다. 쿠웨이트전에서 레프트윙 송제우는 6골, 라이트윙 차해성은 5골을 올렸다. 윙들의 빠른 발이 주효했다. 마지막 7m 드로우를 아쉽게 실패해 승리는 가로막혔지만, 바로 직전 동점까지 갈 수 있었던 데에도 인터셉트 속공이 있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센터백 김태현을 중심으로 큰 신장의 김태관, 안영웅을 양백에 배치했다. 신장을 활용해 중거리 슈팅에 대한 강점을 가져가면서, 상대적으로 작은 센터백은 돌파 플레이로 공격을 풀어갔다. 스텝으로 인한 돌파는 긍정적이었으나 모든 경기를 같은 스타일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공격 돌파 시 상대가 파울로 나왔



을 때 외곽으로 다시 패스가 연결하지 못하고 공격이 끊겼다. 돌파가 장점인 한국이지만 다른 공격 루트 성공률을 높게 가져가야 원하는 플레이는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긍정적인 부분은 송제우와 이창우의 수비였다. 송제우는 큰 신장으로 많은 블락샷을 발생시키고, 거칠지 않지만 확실한 파울로 중심에서 끊어줬다. 골키퍼 이창우 역시 노마크에 가까운 슈팅을 막아내며 바로 속공으로 연결시키는 등 차기 국가대표 골키퍼의 자질을 보여줬다. 한국은 조별리그 예선전에서 쿠웨이트(26-26), 이란(32-27), 사우디아라비아(28-32) 1승1무1패로 조 3위에 머물러 2위까지 진출하는 4강전에 오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해 이란과 파키스탄을 차례로 물리치면서 최종 순위 5위에 안착했다. 대회 우승은 일본이 차지했으며, 대회 4강 팀들에 주는 2023년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티켓은 일본,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 돌아갔다.

남자 주니어 대표팀도 여자팀과 마찬가지로 훈련기간이 짧았다. 대학 리그가 종료된 후 소집돼 6일 훈련 후 대회에 참가했다. 짧은 기간 최선을 다한 선수들과 코칭스태프에게 고생했다는 박수를 쳐주고 싶다. 아직 젊은 선수들인 만큼 이 대회가 끝이 아닌 시작의 의미를 갖길 바란다. 🇰🇷

여자 주니어 세계선수권 최종 순위

순위	팀	순위	팀
1	노르웨이	17	폴란드
2	헝가리	18	루마니아
3	네덜란드	19	대한민국
4	스웨덴	20	슬로바키아
5	덴마크	21	리투아니아
6	앙골라	22	브라질
7	독일	23	기니
8	스위스	24	오스트리아
9	일본	25	아르헨티나
10	몬테네그로	26	인도
11	체코	27	칠레
12	크로아티아	28	카자흐스탄
13	프랑스	29	이탈리아
14	슬로베니아	30	이란
15	이집트	31	미국
16	튀니지	32	멕시코

남자 주니어 세계선수권 최종 순위

순위	팀	순위	팀
1	일본	5	대한민국
2	바레인	6	이란
3	쿠웨이트	7	파키스탄
4	사우디아라비아	8	인도

잊지 못할 명승부, 뜨거운 안녕 3가지 키워드로 돌아본 제19회 태백산기



한 여름의 태양이 뜨겁던 지난 7월 중순, 태백은 승리를 향한 열정이 더해져 더욱 뜨거웠다. 제19회 태백산기 전국종합핸드볼대회가 강원도 태백에서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펼쳐졌다. 이번 대회는 중등부 27개 팀(남중부 12, 여중부 15), 고등부 26개 팀(남고부 15, 여고부 11) 등 총 53개 팀이 참가했고, 남한고(남고부), 황지정산고(여고부), 선산중(남중부), 만성중(여중부)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신승규 기자

치열한 혈투
그러나 이번은 없었다

KEYWORD #1

핸드볼 아마대회 중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태백산기 대회. 대회 마지막 날인 23일 고원체육관에서 중등부와 고등부 결승전이 열렸다. 이번은 없었다. 현장에선 이번 대회 최고의 다크호스로 꼽힌 전북제일고를 제외하면 모두 4강에 오른 만한 팀들이 올라왔다는 평가였다.

먼저 열린 여중부 결승에선 만성중이 이아현(6골), 이윤솔(5골), 방서연, 이예서(이상 4골)의 고른 활약으로 강사론, 최효성(이상 6골)이 분전한 동방여중과 치열한 승부 끝에 23:22로 신승을 거두고 패권을 안았다. 지난 5월 소년체전에서 5년 만의 소년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만성중은 올해 두 번째 전국대회 정상에 올랐다.

이어 진행된 남중부 결승에선 선산중이 남한중을 26:17로 가뿐히 이겼다. 선산중은 전반 오현석과 조호진, 송유빈 등이 삼각편대를 이뤄 일찌감치 승리를 예약케 했다. 이로써 선산중은 지난해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선산중은 읍단위 소재의 학교로서 시설·환경이 열악해 어려움이 따랐으나 선수들의 투지와 지도자들의 열정에 힘입어 태백산기 2연패 포함 전국 단위 규모의 핸드볼 대회에서 잇따라 입상권에 드는 쾌거를 거두며 남중부 강호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고부에선 국내 여고 핸드볼 절대강자인 황지정산고와 일신여고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승자는 홈 코트의 황지정산고였다. 김소율(8골)과 장현정(7골)이 맹활약 한 황지정산고는 일신여고에 31:29로 승리, 예선전의 패배를 멋지게 설욕하며 3년 연속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정년퇴임하는 이춘삼 감독에게 선수들은 마지막 선물을 안겼다.

남고부에선 남한고의 강세가 이어졌다. 남한고는 결승에서 부천공고를 만나 김현민(10골)과 이승용(10골)의 활약 속에 36:32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현재 핸드볼 남고부에선 남한고의 적수는 없어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남한고는 태백산기 2연패 포함 지난해 종별선수권 대회(6월)를 시작으로 태백산기(7월), 전국 체육대회(10월)에 이어 올해 협회장배(3월), 종별선수권(5월) 태백산기까지 6개 전국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바야흐로 '남한고 천하'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결승전은 4점차 승리. 굉장히 여유로워보였고 쉬워보였던 승리지만 그 과정은 매우 극적이었다. 그중에서도 결승전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전주제일고와의 준결승전은 이번 대회의 백미였다. 양팀은 치열한 격전을 주고받은 끝에 정규시간에서 16:16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결국 7미터 승부던지기를 통해 승리가 정해졌다. 양 팀 도합 무려 36명의 선수가 승부던지기에 나선 뒤에야 승자가 가려진 대혈투였다. 절실함의 승리였다. 남한고는 승부던지기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끈질김을 발휘했고, 결국 골키퍼 김현민이 18번째 주자의 슛을 막아내며 팀을 우승으로 견인했다. 김현민 역시 "많은 경기를 보고 해봤지만 이렇게 많은 선수가 승부던지기를 한 건 처음이다. 준결승전은 아마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라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준결승 전주제일고과의 경기에서 김현민의 선방이 없었다면 6관왕의 대업도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것이었기에 남한고에게 더욱 생생한 기억으로 남았다.

최우수선수

COMMENT



이에서
만성중

우선 2관왕 해서 기분이 좋다. 작년 태백산기에서 우승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좋은 기운이 올해까지 이어졌다. 또, 종별대회 4강 탈락의 아쉬움을 태백산기 우승으로 조금이나마 털어낸 것 같다. 우승의 원동력은 수비다. 동료들끼리 수비에 포커스를 맞추고 한명이 뚫리면 다른 한명이 커버해주는 식으로 로테이션이 잘 이뤄졌다. 전국체전에서도 팀워크를 잘 발휘해 우승하는 게 목표다. 더 나아가 내년에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해보고 싶다.

MVP까지 받을 줄은 몰랐는데 막상 받게 되니 기쁨이 크다. 사실 결승전 걱정이 앞서기도 했는데 팀원들이 협동심을 잘 발휘해 준 덕분에 생각보다 쉽게 승리할 수 있었다. 내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 올해 성장세를 이어가 내년에는 또 한단계 발전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



홍의석
선산중



김민서
황지정산고

일신여고를 최근에만 5번 만났는데 5번 모두 졌다. 무엇보다 일신여고에 대한 징크스를 깨게 돼 이번 대회 우승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안방에서 이춘삼 감독님께 마지막 선물을 드려 기쁨이 배가 됐다. 저 포함 팀원들 모두가 홈에서 열리는 태백산기 대회에 자부심을 갖고 뛰고 있다. 그런 간절함이 더해져 우승이라는 결과물을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준결승부터 쉽지 않은 경기들이 많았는데 결국 우승으로 마무리해 기쁘다. 지난 해부터 6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는데 다가오는 전국대회까지 7관왕에 도전해보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대학에 가기 전까지 공수 밸런스를 더 보완하고 싶다.



최동혁
남한고

핸드볼의 도시 태백의 숨은 노력

KEYWORD #2

지난 2003년 시작된 태백산기는 큰 규모의 전국대회다. 대회명 앞에 지명인 '태백'을 붙일 만큼 시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대회이기도 하다. 태백산기의 성공 개최를 위해 태백시핸드볼협회 관계자들은 몇 달 전부터 대회 준비에 전력을 다했고, 올해는 역대 최다 참가 팀이 몰려 협회 관계자들의 노력에 화답했다. 핸드볼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태백시핸드볼 협회를 이끌고 있는 김상태 회장은 태백산기의 성공 개최를 위해 동분서주 했다.

김상태 회장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 대회가 이렇게까지 활성화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다. 무엇보다 대한핸드볼협회 임원진들이 정말 고생이 많았다. 특히, 김진수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 역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고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감격에 겨운 모습으로 대회 개최 소감을 전했다.

을 전했다.

어느덧 19회를 맞은 태백산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몸집을 점점 늘려나가고 있다. 올해의 경우 역대 최다 수준인 82팀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를 실감케했다. "정말 기대 이상으로 많은 참가 팀들이 함께해주셨다. 그만큼 태백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태백산기를 위해 몇 달 전부터 노력한 구성원들 덕분에 태백산기 개최를 통해 참가 선수들이 태백시와 태백산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 무척 뿌듯하다. 참가 선수 분들에게 감사하다."

태백산기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고 말한 김 회장은 "태백산기도 내년이면 성년이 된다. 또, 올해 초 협회와 5년 계약을 통해 태백산기를 비롯해 대학핸드볼리그 등 굵직굵직한 대회들을 향후 5년 간 태백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 계기를 통해 내년에는 더 풍성한 볼거리를 준비해 하나의 축제로 만들어보고 싶다. 더 나아가 태백과 태백산기에 대한 인식이 고취되고, 핸드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태백시핸드볼협회로 거듭나게 노력하겠다"고 인터뷰를 마쳤다.





더할 나위 없는 해피엔딩 이춘삼 감독의 고별무대

KEYWORD #3

태백산기 대회 최고의 장면을 꼽는다면, 단연 이 장면이 아닐까. 23일 대회 마지막 날 펼쳐진 여고부 결승, 황지정산고의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선수들은 하나 같이 벤치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향해 미소를 짓고 있던 이춘삼 감독을 향해 달려들었다. 마치 딸들이 아버지를 열싸안듯 황지정산고 선수들은 이춘삼 감독에게 우승 헝가레와 뜨거운 눈물로 선물을 대신하며 대회 3연패를 만끽했다. 평소 감정표현을 잘 하지 않기로 유명한 이춘삼 감독의 얼굴도 어느 새 상기돼 있었다. 그의 얼굴 표정에서는 지난 34년 간의 기억들이 스틸 사진처럼 스쳐지나가는 듯했다. 대회가 끝난 후 그는 많은 핸드볼 관계자들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으며 감독으로서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았다. 경기가 끝난 후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우승을 해준 아이들에게 너무 고맙다. 아마도 오늘 마지막 경기는 가슴 속에 오래 남아 있을 것 같다”며 감격적인 우승 소감을 짧게 밝히기도 했다.

황지정산고 선수들은 이번 대회에 앞서 이춘삼 감독과 한 가지 약속을 했다. 그것은 바로 “우승 선물”이었다. 결국 선수들은 그와의 약속을 지켰고, 그 어떤 선물보다 더 값진 우승 트로피를 안겨줬다. 그는 경기가 끝난 후 아이들을 세워 놓고 감독으로서 마지막 말을 남겼다. 그는 “대회 전 약속한 것을 지켜줘서 고맙다. 너희들은 항상 황지정산고 선수가 아닌 국가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뛰어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아이들이 준 마지막 선물에 감격스러워했다.

34년 전인 1988년, 황지정산고 여자 핸드볼 팀 지휘봉을 잡은 이춘삼 감독은 이번 대회를 끝으로 정년퇴임한다. 이춘삼 감독은 황지정산고가 성장하는 데 기틀을 닦은 지도자다. 부임 초기만 해도 전국 대회에서 4강을 들락날락했던 황지정산고를 2년 만에 전국 대회 우승권에 올려놓았다. 이후 인사발령으로 잠시 공백기를 갖기도 했던 이춘삼 감독은 지난 2014년 친정인 황지정산고 핸드볼팀으로 컴백해 같은해 제주도에서 열린 제95회 전국체전을 제패, 이어 2019년에는 제100회 전국체전까지 6연패 금자탑을 쌓는 등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이춘삼 감독 INTERVIEW

Q. 고별무대를 우승으로 장식했다. 이보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없을 것 같다

우선 결승까지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 일신여고가 여고부에선 전국적인 강팀이고 굉장히 버거운 상대인데 선수들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집념을 갖고 정말 열심히 뛰어줬다. 사실 이렇게 열심히 뛰어줄 줄은 몰랐는데 눈빛에서부터 간절함이 보였다. 또, 작년에 우승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운영적인 면에서도 수월함이 있었다.

Q.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선수단 전원이 눈물을 흘리며 품에 안겼는데.

나도 감동 받았다(웃음). 만감이 교차하며 우리가 지난 날 쌓았던 추억들이 스쳐지나갔다.

Q. 34년의 지도자 생활을 마무리한다.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40년 가까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핸드볼과 함께하면서 쉼 없이 달려왔는데 막상 정 들었던 곳을 떠난다고 하니 착잡하고 아쉽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기보다는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한 모든 순간이 다 기억에 남는다. 희노애락이 가득했다. 또, 개인적으로는 오랜 기간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노하우나 작전, 경기 경험 등을 습득할 수 있었다.

Q. 지도자 생활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아이들에게 지도자로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된다. 진로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든다.

Q.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인성과 예절이다.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미래사회 구성원으로서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또, 여자 핸드볼 인기가 점점 높아가고 있는데 기술 습득에 소홀히 하지 말고 열심히 기량을 갈고 닦아 좋은 선수가 됐으면 한다. 🍀



제자들이 말하는 이춘삼 선생님

김세진 학생

이춘삼 선생님은 항상 저희들을 위해 희생해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끈기를 강조해주시다. 그 덕분에 결승전에서도 일신여고를 상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력을 발휘해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선생님과 인연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선생님이 그동안 저희에게 주신 가르침 항상 되새기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선수가 되겠다.

김소율 학생

끈기와 집념의 철학을 깨우쳐 준 스승이시다. 여태까지 선생님께 좋은 것만 배웠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성장해서 부끄럽지 않은 제자,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고 싶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은 한국 대학핸드볼 2022 FISU 핸드볼 월드컵 결산

한국체대와 강원대 핸드볼팀이 유럽 코소보 프리슈티나에서 열린 2022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핸드볼 월드컵에서 각각 여자부 우승과 남자부 준우승의 값진 성과를 거뒀다. 대학 축제와 같았던 이번 대회는 한국 핸드볼의 현재이자 미래인 대학 선수들에게 소중한 경험의 장이기도 했다. 성과와 경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내며 기분 좋게 마무리된 이번 대회를 감독 인터뷰와 함께 돌아본다.

글. 김희수 기자 사진. FISU 제공



지난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코소보 프리슈티나에서 2022 FISU 핸드볼 월드컵이 열렸다.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FISU 월드컵은 올해부터 변경된 FISU 규정에 따라 대학선발팀이 아닌 대학 단일팀이 한국대표로 출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여자부에서는 한국체대가, 남자부에서는 강원대가 지난해 대학핸드볼통합리그 1위 자격으로 한국 대표로 출전했다. 참가국은 스페인과 체코, 알바니아, 코소보,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몬테네그로, 튀르키예까지 모두 9개국이었다. 이 중에서 비유럽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골득실 +68점!’ 압도적 경기력

한국체대, 정상에 서다

팔라츠키(체코)-쉬코드라(알바니아)와 함께 A조에 배정된 한국체대는 두 팀을 가볍게 제압하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UP HP(코소보)를 만나 32-23으로 이긴 한국체대는 대망의 결승에서 스페인의 UCLM을 만나게 됐다. 한국체대는 결승에서도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대회 정상에 올랐다. 한국체대는 4경기 모두 10점 이상 점수 차를 벌리며 승리했으며, 총 144득점-76실점으로 대회 골득실은 무려 +68점이다. 과정과 결과 모두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한국체대다.

한국체대 백상서 교수

Q.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대회를 마친 소감은.

한국 대학 핸드볼을 대표해서 나간 대회에서 우승을 거둬서 기쁘다. 선수들이 흔치 않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Q. 대회 내내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가장 어려웠

던 경기가 있었다면?

결승에서 만난 UCLM은 조직력이 좋은 팀이었다. 경기 전부터 준비와 분석을 철저히 했는데도 결승이라 부담감이 커서 경기 초반 어렵게 풀 어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수들의 긴장이 풀리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 여줬다.

Q. 많이 성장한 선수가 있다면 누굴 꼽고 싶은지?

4학년 손민경이 수비에서 큰 역할을 해줬다.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대 회 MVP에 선정된 조은빈이 잘해줬다. 일대일 공격을 잘 풀어줘서 수 월한 경기를 할 수 있었다.

Q. 응원해주신 분들과 선수들에게 한 마디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준 핸드볼아카데미와 대한핸드볼협회에 고마 움을 표하고 싶다. 우리 선수들에게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좋은 모습 보여줘서 너무 고맙다.

남자부

‘값진 준우승’ 최선을 다한 강원대, 다시 전진할 다음 목표를 남겨두다

한국체대가 우승을 결정지은 그 경기장에서, 여자부 결승 종료 후 곧 바로 강원대와 UP HP(코소보)의 남자부 결승전이 펼쳐졌다. 몬테네 그로(몬테네그로)-폴라(크로아티아)가지(튀르키예)와 B조에 속한 강 원대는 조별 예선을 전승으로 통과했고, 준결승에서 스페인의 UCLM 을 상대로 29-27로 승리하며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는 홈팀인 UP HP에 30-33으로 석패하며 준우승을 거뒀다. 상대방의 안방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훌륭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강원대 박현중 감독

Q.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쳤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좋은 경험이었다. 단일팀이든 선발팀이든 대학 핸드볼 선수들이 앞으로도 이런 경험을 꼭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FISU 월드컵은 다른 국제대회들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대회였다.

Q. 코소보 대학팀을 결승에서 상대했다. 상대의 안방에서 치르는 경 기라서 느낀 어려움은 없었는지?

코소보가 작은 국가다 보니 이런 국제대회는 큰 국가적 이벤트이다. 응원단도 엄청 많이 와서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 결승전이 워낙 접전 이었다. 코소보의 홈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경기였다고 느껴서 아쉽다.

Q. 이번 대회에서 돋보였던 선수는?

수비에서는 전승원을 꼽고 싶다. 전승원은 원래 좋은 수비 톨을 가졌 지만 국내 리그에서는 전진수비를 빠르고 강하게 할 상황이 많지 않 다. 이번 대회에서는 상대팀들과의 피지컬 차이가 있어 전진수비를 적 극적으로 활용했어야 했는데, 전승원이 열심히 뛰면서 큰 역할을 해 줬다. 공격에서는 김성민과 육태경 듀오가 거친 몸싸움도 피하지 않고 득점도 많이 올려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



한국체대는 계속 날고, 원광대는 계속 빛났다

2022 대학핸드볼 통합리그 결산

대한핸드볼협회가 주최한 2022 대학핸드볼 통합리그가 지난 7월 7일 한국체대와 원광대의 결승전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남자대학부(1부·2부), 여자대학부(1부·2부) 총 18개 팀이 참가해 약 3달간의 레이스를 이어간 대학핸드볼리그는 매 경기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로 강원도 태백을 뜨겁게 달궜다. 대학핸드볼리그의 메인이벤트격인 남자대학 1부에선 디펜딩 챔피언 한국체대가 ‘다크호스’ 원광대를 꺾고 6개 팀이 참가한 왕좌의 게임에서 최종 승리자가 됐다. 이로써 한국체대는 2년 연속 챔피언 우승 팀이 돼 대학핸드볼의 새로운 지배자가 됐다. 최종 승자는 한국체대가 차지했지만, 나머지 5팀 모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명승부를 그려냈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문복주 기자

반박불가! 대학 최강자 한국체대

많은 관계자들이 예상했던 대로 우승은 한국체대 차지였다. 지난해 참가한 모든 대회에서 우승했던 한국체대는 올해도 어김없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왕좌에 올랐다. 정규리그부터 플레이오프까지 한국체대의 올 시즌 행보는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었다. 한국체대는 정규리그 12경기에서 단 1패만을 기록하며 ‘절대 1강’다운 면모를 보였다. 개막 6연승으로 파죽지세를 달리던 한국체대는 단 한 번의 일격을 당했다. 상대는 최근 몇 시즌 동안 한국체대의 천적으로 자리매김한 경희대. 6월 4일 경희대전에서 27-32로 패했다.

한 차례 지기 전까지 전승 우승의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한국체대의 기세는 대단했다. 하지만 한국체대의 혼란은 오래가지 않았다. 경희대 전 패배 후 오히려 자신감을 얻었고 결속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다음 날인 6월 5일, 충남대와 맞대결에서 33-25 승리를 시작

로 다시 한번 연승 가도를 달리며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정규리그 우승은 사실상 떼놓은 당상이었다.

3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달성한 한국체대는 이제 한 가지 과업만을 남겨뒀다. 바로 지난해 달성하지 못했던 통합우승이다. 고무적인 건 플레이오프 방식 변화에 따라 정규리그 1위 팀도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정규리그 1위팀에게 챔피언결정전 직행하는 혜택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한국체대는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했고, 챔피언결정전 파트너는 원광대로 결정됐다.

3전 2선승제로 치러진 결승전, 시리즈의 최대 분수령은 1차전이였다. 챔피언결정전 답게 치열한 명승부가 펼쳐졌다. 전반전이 끝났을 때 양팀의 스코어는 1점 차(16-15 한국체대 리드), 박빙의 승부가 벌어졌다. 전후반 내내 박빙 승부가 전개됐고, 승부는 경기 종료 3분 여를 남기고 갈렸다. 뒷심이 강한 건 한국체대였다. 27-27로 팽팽히 맞선 상황에

서 조동현의 6미터 슛 성공으로 28-27로 앞서나간 한국체대는 원광대가 실책으로 주춤하는 틈을 놓치지 않았다. 곧바로 스틸에 성공, 이를 속공 득점으로 연결하며 양팀의 팽팽한 접전 승부는 균열이 갔다. 한국체대는 이후 추가점을 내주지 않으며 그대로 승리를 가져갔다. 챔피언결정전 1차전 승리. 그 의미는 컸다. 기선 제압 그 이상이었다. 그 기세를 이어가 2차전에서는 김태관(9골), 조동현(5골), 진유성(3골)으로 이어지는 삼각편대가 맹활약, 25-21로 승리하며 마침내 첫 통합우승의 쾌거를 이뤘다. 2016년, 2019년 그리고 지난해에 이은 역대 네 번째 우승의 영광을 안으며 한국체대 천하를 알렸다.

한국체대가 2년 연속 대학리그를 제패할 수 있었던 데는 최대 강점인 트윈 타워를 활용하는 능력, 능숙한 경기 운영, 그리고 4학년 선수들의 리더십 등 삼위일체가 맞아 떨어진 결과였다. 날이 갈수록 경험을 더한 한국체대 4학년 선수들의 경기력은 달라진 모습을 선보였다. 폭발적인 득점력은 물론 팀의 강점을 살리는 경기 운영을 하면서 굳은 일에 더 집중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 골키퍼 이창우가 컨트롤 타워로서 전반적인 경기 조율에 앞장 선 가운데 김지운, 조동현, 진유성 등 공격수들과 김태관, 유찬민의 트윈 타워도 살아나기 시작했다. 또한 본래 강력한 모습을 보였던 수비에서도 여전히 강력함을 과시하며 타팀들을 압도했다. 공수 양면에 걸쳐 조화로운 선수 구성과 두꺼운 선수층으로 거침없는 연승 행진을 이어갔고, 결국 정규리그, 플레이오프 포함 총 14경기에서 13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저력을 보였다.

준우승 속 희망 본 원광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원광대. 그러나 한국체대의 압도적인 전력에 결국 패하고 말았다. '플레이오프 진출'을 올 시즌 목표로 내걸었던 원광대는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했지만, 지난 시즌보다 한 단계 높은 2위라는 성적을 거두며 다음 시즌을 향한 희망을 밝혔다. 지난 시즌 3위로 깜짝 반란을 일으켰던 원광대는 올 시즌에는 통합리그제로 제도가 바뀐 이래 처음으로 챔피언결정전 무대에 진출, 지난 시즌의 성적 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다. 원광대의 상승세는 적장도 인정할 정도다. 한국체대 백상서 교수는 “올 시즌 원광대의 짜임새와 조직력은 정말 놀라웠다. 그 중에서도 이준희와 김태웅을 필두로 한 센터백 선수들의 수비 조직력이 눈에 띄었다. 이 선수들은 앞으로 주니어 대회에 가서도 자기 몫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들이다”라고 원광대 선수들의 경기력에 엄지를 치켜세웠다. 기존 강자들의 활약에 새로운 강자의 등장이 맞물릴 때 해당 종목의 인기가 높아질 수 있다. 대학리그의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른 원광대의 등장이 다소 침체되어 있던 대학핸드볼 리그 흥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 대학핸드볼 통합리그 입상 내역

1위	한국체대	2위	원광대	3위	조선대
----	------	----	-----	----	-----



“계속해서 발전하는 팀 될 것”

**한국체대 2연패 이끈
백상서 교수**



Q.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 자리에 올랐다. 한 시즌을 돌아본다면.

결승전 상대인 원광대를 비롯해 경희대, 강원대 등과 재밌는 경기를 많이 했다. 다만, 우리의 경기력이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침체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승을 차지했지만 경기력만 놓고 보면 작년에 못 미쳤다는 생각이 든다.

Q. 올 시즌 2연패 달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선수 구성이 타 대학보다 잘 갖춰졌고 무엇보다 골키퍼의 비중이 컸지 않았나 싶다. 우리 팀은 특히 골키퍼 활약에 따라 승패 유무가 갈리는 편인데 이창우 골키퍼가 뒤에서 든든히 잘 받쳐준 게 크게 작용했다. 그 외로 동계 훈련 때 체력 훈련을 잘 해놓은 덕분에 체력적인 부분에서 다른 팀을 압도할 수 있었다.

Q. 반대로 한 시즌 치르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지난 해처럼 단일 대회가 아닌 장기 레이스를 치르다 보니 선수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 드문 드문 경기가 있다 보니 좋았던 경기력이 계속 이어지지 못한 점도 아쉽다. 그로 인한 심리적인 부담감도 존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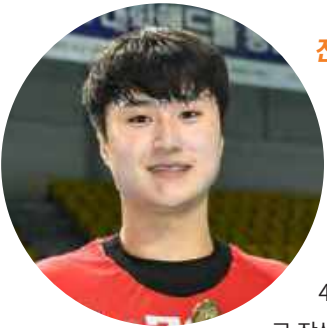
Q. 4학년 선수들의 기량이 부쩍 향상됐다.
이창우, 김태건, 이미우 선수의 기량이 많이 올라왔고 팀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세 선수 모두 경기 운영에 대한 부분이 많이 향상됐다.

Q. 앞으로 대학리그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견해를 말해줄 수 있나.
한 가지 말하자면 취업 문제를 얘기하고 싶다. 실업과 대학 연맹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4학년 선수들이 진로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이 많다. 하루 빨리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Q. 10월 달 전국체전이 남아있다. 선수들에게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은지.
8월부터 훈련이 재개되는데 전국체전에서 실업팀을 상대로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한번 대등하게 맞서고 싶다. 또 선수들이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끈기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지금 있는 선수들이 대표팀에 선발 돼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기량을 뽐낼 수 있게 훈련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도 더 보완할 것이다. 한 해 한 해 더 발전하는 팀이 되겠다.

“어느 팀을 가건 인정 받는 선수 되고파”

**대회 MVP 한국체대
진유성(4학년, PV, 195cm)**



Q.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MVP까지 수상하게 돼 기쁨이 클 것 같다. 소감은?

4학년 마지막 리그전을 우승으로 장식해 기쁘다. 대회 중간 중간

관들이 많았는데 팀원들이 모든 위기를 이겨내줬다. 함께 열심히 땀 흘려준 팀원들에게 우승의 공을 돌리고 싶다.

Q. 챔피언결정전 1차전, 이기긴 했지만 쉽지 않은 승부가 이어졌다.
(원광대) 상대하기 까다로운 팀이다. 우리 팀에 비해 신체 조건이 뛰어나지도 않은데 수비조직력과 짜임새가 너무 잘 갖춰져있어서 공격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Q. 올 시즌, 개인의 활약을 돌아켜본다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많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해 조금 실망스러웠다. 개인적으로 파워적인 면에서 부족함을 느꼈다. 웨이트 훈련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낀 대회였던 것 같다. 1차 대회 때는 개인적으로 부진했는데 그래도 2차 대회에서 조금 만회하지 않았나 싶다. 팀원들과 비디오 미팅을 통해 약점들을 보완했고 또, 센터백 선수들이 공도 매끄럽게 잘 연결해줘서 나에게 찬스가 많이 났다.

Q. 실업에 가기 전 마지막 대회가 전국체전이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1차 목표인 리그를 달성했다. 전국체전에서는 입상권에 드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Q. 롤 모델은 누구인가.
SK의 박세웅 선수를 롤 모델로 삼고 있다. 저랑 나이차도 나지 않는 데 포지션이 같다는 공통점도 있고 플레이 스타일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박세웅 선수에 비해 한참 모자라지만 그나마 근접하게 따라갈 수 있는 선배라고 생각해 롤 모델로 삼게 됐다.

Q. 앞으로 어떤 선수로 성장하고 싶나.
실업에 가면 신인상도 타보고 싶고 대표팀에도 뽑혀보고 싶다. 어느 팀을 가건 실력적으로 인정 받는 선수가 되고 싶다. 덧붙여 제 포지션인 피벗에서 독보적인 선수가 되고 싶다.🏐



동남아시아게임 세미나에서 발견한 무한한 가능성 비치핸드볼, 뜨거워질 준비는 마쳤다

비치핸드볼 세계화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비치핸드볼에 대한 기대감이 샘솟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는 3년 전부터 비치핸드볼 보급 확대를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비치핸드볼의 재미를 알리고 더 나아가 핸드볼 저변을 확대하자는 의지였다. 지난 5월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동남아시아게임(Seagames)때 비치핸드볼 TF팀과 핸드볼협회 관계자, 심판들을 대상으로 비치핸드볼 TF 세미나도 열었다. 이들은 동남아시아게임 비치핸드볼 경기를 참관하며 대회 운영 정보도 수집했다. 비치핸드볼에 관해선 문의하곤 했던 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됐다. 동남아시아게임 비치핸드볼 TF 세미나를 다녀온 구본욱 TF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운영 방침 등에 대해 들어봤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구본욱 심판 제공



하얀 백사장 위에서 하는 스포츠, 흔히들 비치발리볼을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비치발리볼 못지 않게 ‘비치핸드볼’도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각광 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다. 선수들은 때로는 높이 뛰고 때로는 몸을 비틀거나 360도 회전하며 공을 던진다. 한 팀이 골을 넣자 상대 팀의 공격이 바로 이어지며 빠르게 경기가 전개된다. ‘비치핸드볼’ 경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비치핸드볼은 아직 국내에선 생소한 종목이다. 아직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 종합대회 정식종목이 아니지만, 국제핸드볼연맹(IHF) 주최로 2004년부터 격년제로 세계 선수권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지난해 유스올림픽에서는 핸드볼 대신 비치핸드볼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아쉽게도 2024 파리올림픽 시범종목 채택에는 실패했지만, 2028년 LA 올림픽에서는 시범종목으로 채택되는 것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핸드볼협회도 비치핸드볼의 가능성을 주목해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움직이고 있다. 이제 시작이고 겨우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지만 국내에서도 비치핸드볼에 거는 기대가 실로 크다. 8월 말에는 국내에 비치핸드볼 첫 공식 대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핸드볼협회는 지난 5월, 비치핸드볼 구축 지원과 보급을 위한 ‘비치핸드볼 TF팀’을 구성하고, TF장에는 구본욱 국제심판을 선임했다. 다수 국제대회를 소화한 베테랑 국제심판이기도 한 구TF장은 수년 전

부터 비치핸드볼에 관심을 갖고 비치핸드볼 보급화에 앞장 서고 있다. 그는 “사실 모든 게 처음인자라 책임감이 크고,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뒤따른다”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으로 많은 시민이 비치핸드볼에 가까워지고 즐길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한국 대표팀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다음은 구본욱 비치핸드볼 TF장과의 인터뷰이다.

Q. 비치핸드볼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는지 궁금하다.

정확히는 13년 전이었던 것 같다. 그 당시 국내에 외국인들로 구성된 비치핸드볼 팀이 있었다. 한강에서 같이 비치핸드볼을 했는데, 핸드볼과는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 그 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다. 하지만 비치핸드볼을 하는 사람이 없어 그동안에는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

Q. 동남아시아게임 비치핸드볼 TF 세미나를 다녀왔다. TF 세미나는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

해를 거듭할수록 비치핸드볼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도 3년 전에 본격적으로 TF팀을 구성하고, 대표팀을 꾸리는 등 비치핸드볼을 국내에 보급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인해 타국과 교류를 맺는 데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3년째 뒤





하나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었고, 지난 5월 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게임(Seagames)에서 비치핸드볼이 처음으로 정식종목에 채택됐다. 시기상으로 이때가 좋을 것 같았다. 한국에선 비치핸드볼과 관련한 정보력과 자료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동남아시아대회를 경험하면서 첫 걸음을 떼보자는 각오로 세미나를 추진하게 됐다.

Q. 세미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베트남, 태국 핸드볼협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우리 협회는 그동안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각국 핸드볼협회 관계자들과 돈독한 유대 관계를 형성해왔다. 그 덕분에 세미나와 관련된 내용을 어렵지 않게 요청할 수 있었고 두 협회 측에서도 흔쾌히 요청을 받아들여 세미나가 진행될 수 있었다.

Q. TF 세미나 참가단은 어떻게 구성됐나.

총 7명이 세미나에 다녀왔다. 협회 관계자, 핸드볼 심판 등으로 구성됐다. 시설팀, 경기팀 등 각자 맡을 역할을 파트별로 나눴다. 저는 TF팀 총괄을 맡으며 팀원들을 인솔하는 역할을 맡았다.

Q. 아무래도 비치핸드볼은 기존 핸드볼과 달리 규칙도 다르고, 경기하는 방식도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비치핸드볼의 가장 핵심이 되는 철학은 '페어플레이'다. 핸드볼과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기본적으로 몸싸움이 엄격

하게 제한되어 있고 핸드볼보다 창의적이고 화려한 플레이를 추구한다. 예를 들어 360도 돌아서 슈팅한다든지, 맞붙는 선수들끼리도 매너 있게 플레이 한다. 그런 점이 비치핸드볼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Q. 세미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됐나.

동남아시아대회에서 비치핸드볼 경기는 6일 동안 열렸는데, 우리는 3일 동안 경기를 참관하고 세미나는 하루에 걸쳐 진행했다. 비치핸드볼의 기초, 경기 규칙, 훈련 방법 및 전술 등 총 3가지 과목을 배웠다. 태국협회 담당자께서 세미나 전반을 지휘했고, 베트남협회 담당자는 훈련 방법, 경기 전술, 경기장 짓는 법 등에 대해서 지도해줬다.

Q. 세미나를 통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느낀 점이 있다면.

비치핸드볼 대회가 열리는 걸 직접 본 건 처음이었다. 나로서 모든 게 새로웠다. 또, 비치핸드볼의 경우, 특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앞서 말했듯이 비치핸드볼은 몸싸움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골키퍼와 부딪히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경기가 중단된다.

Q. 동남아시아대회를 통해 느낀 동남아의 비치핸드볼 인기는 어느 정도였나.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남자뿐 아니라 여자팀까지 남녀 모두가 아시아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팀만큼 축구만큼의 인기는 아니지만 작은 해변의 간이 관중석이 가득 찰 만큼 관심 있는 종목인 것만은 분명

하다. 2028 LA 올림픽 시범종목에 편입 가능성이 큰 만큼 동남아 국가들 또한 큰 관심을 갖고 발전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Q. 공식대회는 아니었지만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인 2019년 부산 광안리에서 비치핸드볼 테스트 이벤트가 열리기도 했다. 국내 보급화를 위해서는 대회 개최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 향후 국내에서 대회 개최 계획은?

8월 말에 베트남, 필리핀, 태국 선수들을 초청해 4개국 비치핸드볼 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우리 선수들은 핸드볼 대학 선수들 위주로 A팀, B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또, 저변 확대 차원에서 생활체육 대회도 겸해서 개최한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휴가철이라 장소 구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고 해수욕장에서도 협조를 잘 해주지 않고 있다. 첫 대회인만큼 TF팀 구성원들끼리 나름대로 멋진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장소 문제만 매듭짓는 일만 남았다.

Q. 비치핸드볼 활성화를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떠안고 있을 것 같다. 앞으로의 포부를 듣고 싶다.

오래 전부터 비치핸드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협회 측에서 처음 TF 팀장직 제안을 하셨을 때, 큰 고민없이 수락할 수 있었다. 사실 모든 게 처음이라 책임감이 크고,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뒤따른다. 하지만 이왕 이리된 거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비치핸드볼이 활성화 된다면 핸드볼의 인기 또한 덩달아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으로 많은 시민이 비치핸드볼에 가까이하고 즐길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한국 대표팀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 🌐

SIDE STORY

비치핸드볼은 핸드볼과 완전 다르다?!

비치핸드볼과 핸드볼은 규칙도 다르고, 경기하는 방식도 다르다. 우선 핸드볼(7명)과 달리 필드 플레이어 3명과 스페셜 플레이어를 겸하는 골키퍼 1명까지 4명이 된다. 경기장 규모가 가로 27m×세로 12m로 핸드볼 코트(40m×20m)보다 작은 데다 '2점슛'이 존재해 경기 속도가 빠르다.

비치핸드볼은 스카이스hoot이나 360도 회전슛처럼 '창의적인 플레이'로 득점했다고 심판이 판단할 경우 2점이 주어진다. 수비 반칙 시, 공격팀에 주어지는 페널티 드로에도 2점을 주는데, 이는 몸싸움을 최소화하고 화려한 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골키퍼를 겸하는 '스페셜 플레이어' 1명을 두는데, 스페셜플레이어의 득점도 2점이다. 농구처럼 실점 뒤 바로 공격이 가능하기에, 득점한 팀이 방심한 사이 실점한 팀 골키퍼가 상대 골문으로 룡슛을 던지면 2점을 얻는다. 전·후반 60분 동안 팀당 20점 내외로 득점하는 핸드볼과 달리, 비치핸드볼은 2피어리드로 구성됐으며 한 피어리드 각 피어리드는 10분간 진행된다. 각 피어리드 승리 팀에게는 1점(세트스코어)이 주어진다. 2피어리드가 끝나고 1:1 동점일 경우, 승부 던지기를 통해 승패를 가른다.



“다음 목표는 올림픽” 국제심판 첫발 내딘 권진수·김도용 심판의 꿈과 도전



권진수 심판
생년월일
1996.10.28
학력
경희대(졸)
국제심판자격증 취득일자
2022.05.30

김도용 심판
생년월일
1998.09.30.
학력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국제심판자격증 취득일자
2022.05.30

IHF 국제심판은 모든 심판들의 선망의 대상이다. 아무에게나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심판활동 점수는 물론이고 영어, 체력 등에서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자리다. 까다로운 테스트와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반면 보람과 기쁨은 그 이상이다. 올해 새롭게 국제심판이 된 두 명의 젊은 청년은 더더욱 벅찬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주인공은 권진수, 김도용 커플이다. 한국인 최초 핸드볼 국제심판 커플 이석·구본옥 커플 심판을 바라보며 국제심판에 도전하게 된 이들은 2021년 심판강습회에서 심판 자격을 획득했으며 올해 5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렸던 아시아 대륙심판강습회에서 합격해 국제심판으로서 당당히 첫 걸음을 내디뎠다. 나이가 어리다라는 편견 속에서도 호기로운 포부로 도전장을 내민 권진수·김도용 심판을 만나봤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본인 제공

Q. 심판이 된 이유는?

권진수 경희대 재학 시절 핸드볼 동아리팀 회장을 맡았다. 회장 활동을 하면서 여러 동아리 대회에 참여했는데 그 때부터 심판 활동에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됐다. 처음에는 막연히 생각만 했다(웃음). 그러면서 졸업이 가까워졌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데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사무실에서 일하는 건 못하겠더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핸드볼 심판 자격증부터 땀다.

김도용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엘리트 선수로 활동했다. 운동을 그만두고 TV를 통해 구본옥 심판께서 리우올림픽에 출전한 걸 봤다.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 그 때부터 심판에 대한 꿈을 갖기 시작하고 영어학원부터 다닌 기억이 난다.

Q. 국제심판을 준비했던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

권진수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했다. 2년 전인 2020년 한국 대표로 아시아대륙심판강습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코로나19로 모든 게 멈췄다. 사실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던 시기라 다른 일을 알아볼까도 고민했는데, 마침내 올해 5월 강습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1월부터 도용이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했다. 심판 강습회에서는 체력테스트도 면접 점수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즈벡 강습회에 가기 전, 국내에서 체력테스트를 했더니 평균치에 못 미치더라. 국제심판은 커플레이기 때문에 내가 못하면 (김)도용이도 탈락하게 된다. 그때부터 심각성을 느끼고 체중 감량을 시도했다. 확실히 몸이 가벼워졌고 다행히 체력테스트에서도 조금씩 평균치까지 점수가 올라올 수 있었다.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깎이지는 않을까 내심 걱정도 됐지만 최대한 자신감 있게 하려고 했다. 실기에서 휘슬 불 때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 있게 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다.

김도용 코로나19로 인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때가 가장 어려웠다. 또 처음에는 영어에 대한 걱정도 많았다. 그래도 (권)진수 형과 영어 공부 밤잠 설쳐가면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난다.

Q. 선구자인 이석·구본옥 심판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다

권진수 대한핸드볼협회 관계자들을 비롯해 이석, 구본옥 심판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다. 핸드볼아카데미 이석 심판 분과장님께서 밤낮 가리지 않고 쓴소리 아까지 않으며 힘을 보태주셨다. 구본옥 심판께서는 우즈벡으로 강습회를 떠날 때 인천공항으로 배웅을 나와 현지에서 맛있는거 사먹으라며 용돈을 챙겨주시기도 했다. 덕분에 두 분과의 정이 많이 쌓였다. 이 자리를 빌려 이석, 구본옥 심판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김도용 사실 국제심판과 관련해 아는 정보나 자료가 하나도 없었는데, 두 분께서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며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셨다. 두 분이 아니었으면 아마 테스트에서 합격하지 못했을 거다. 그 정도로 두 분께서 열과 성을 다해 도움을 많이 주셨다.

Q. (국제심판자격증) 합격했던 순간을 떠올린다면

권진수 제가 우즈벡에 있을 때, 우스갯소리로 우리 합격 못하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 취소할 거라고 했다. 도용이가 ‘아 형, 우리 집에 갈 수 있을까’라는 등 짓곳은 장난을 치기도 했다. 강습회에선 총 여덟 커플이 참가해 다섯 커플이 합격했는데 강습회 시작하고 딱 일주일이지났을 때, ‘아 우리가 잘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좋은 예감이 들었다. 국내에서 심판 자격증 땀을 때는 크게 느껴지는 감정이 없었는데 이번엔 정말 기뻐다. 큰 벽을 하나 뛰어넘은 기분이랄까. 그렇다고 마냥 내내 기뻐하지는 않았다. 이제 국제심판으로서 출발점에 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책임감과 부담감도 공존했다.

Q. 심판 커플로 움직이는데 서로 잘 맞나?

권진수 사실 둘의 성향만 놓고 보면 정반대다. 저는 내성적이고 차분한 것을 좋아하는 반면에 도용이는 외향적이고 도전적이다. 그래서 우즈벡 강습회에 갔을 때도 도용이는 외국 심판들과 금방 친해지더라. 현지에 계신 강습회 위원장님께서 ‘재 우즈벡 현지인인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개인적으로 도용이의 그런 면이 부럽기도 했고 인상 깊어 남았다. 결과적으로도 도용이의 장점이 빛을 발했다고 생각한다.

김도용 너무나도 고마운 형이다. 사실 처음 호흡을 맞췄을 때는 시행착오도 있었고 어려움이 따랐는데 그럴 때일수록 진수형이 많이 도와주고 희생했다. 진수 형이 수원에 사는데 심판강습회 연습을 위해 수시로 수원과 광주를 오가며 저를 데리고 연습시켜줬다. 지금은 가족보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연락한다.

Q. 아시아 심판자격증 취득이 갖는 의미는?

권진수 솔직히 말하면, 아직 국제심판으로 데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실감나지 않는다. 사실 우리 같은 20대들은 국제심판 도전이 쉽지만은 않다. 나이가 어리다는 시선과 편견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지금 국내 20대 심판들 중에서도 국제심판은 우리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에 국제심판에 합격하면서 확실히 느꼈다. 어린 심판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음을 말이다. 스스로도 벽을 허문 것 같아 내심 기분이 좋았다. 앞으로도 젊은 심판은 안 된다라는 그런 편견을 깨고 싶다.

김도용 국제심판 자격증은 ‘꿈’이다. 처음에 이석, 구본옥 심판을 보면서 심판에 대한 꿈을 키웠다면, 국제심판이 된 지금은 그분들을 따라잡아야겠다는 목표가 생겼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많은 경기 경험이 필요하고 파트너인 진수 형과 호흡도 더 맞춰나가야 한다.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많은 경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본다.

Q. 미래의 국제심판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권진수 확고한 목표와 동기만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심판이 되도록 멋있게 하고 싶다.

김도용 국제심판을 준비해보니 결코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더라.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내야 한다. 심판회의나 용어 등 모든 것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만큼은 확실하게 공부해야 된다고 조언하고 싶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한다. 앞으로도 우리와 같은 20대 젊은 심판들이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다.

Q. 최종목표는 무엇인가?

권진수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많은 국제대회를 경험하면서 국제심판에 걸맞게 성장하고 싶다. 한 해 한 해 계속 성장해나가다 보면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김도용 앞서도 언급했듯 심판을 시작할 때부터 이석, 구본옥 심판과 같은 국제심판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 이 자리에 있게 돼 가슴이 벅차오르고 선배님들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스럽다. 이석, 구본옥 심판처럼 아시안게임, 올림픽과 같은 큰 대회에 출전해보고 싶다. 그러려면 체력관리도 해야 되고 더 많이 성장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다같이 노력해서 후배 심판 양성에도 힘을 보태고 싶다.🌐



‘우승후보’라는 말은 이제 그만! 이제는 반송초 시대!

27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진 팀답게 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우승후보’로 뽑히던 팀이 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우승에 도전하는 팀. 27년간 우승 문턱에서 번번히 좌절했던 팀이 올해는 2관왕을 달리고 있다. 그 중심에는 올해 2월 새롭게 부임한 이석현 감독이 있다. 선수들을 먼저 생각하고 선수들을 위해 노력하는 사령탑이다. 바야흐로 반송초 시대다.
글. 박해성 기자 사진. 팀 제공

의미 있는 소년체전

창단 이후 감격의 첫 우승

반송초 핸드볼부는 1995년 창단해 올해로 27번째 이어오고 있는 팀이다. 긴 역사를 자랑하는 반송초지만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다. 반송초는 우승에 대한 갈증을 풀기 위해 올해 2월 이석현 감독을 새로 선임했다. 이석현 감독은 부임 후 “예전 대회들을 보면 역전패하는 경기가 많았다. 자신감을 잃은 선수들 멘탈 관리를 해주는 것에 집중했고 할 수 있

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이석현 감독의 노력이 통한 것일까. 반송초는 우승후보라는 말을 깨고 나왔다. 반송초는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린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4경기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위기도 있었다. 진천 상산초와 진행했던 결승전에서 선수들이 긴장한 탓에 전반전을 뒤흔 채로 마무리했다. 이석현 감독은 경기 흐름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선수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

감을 불어넣어 줬고, 기본적인 것부터 하자고 말했다. 연습 때처럼만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란 걸 알기에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힘썼다. 반송초는 후반 들어 긴장이 풀리며 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결국 극적인 역전승을 만들며 창단 이후 첫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반짝으로 끝나지 않았다

파죽지세 태백산기

소년체전이 끝이 아니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강원도 태백에서 열린 ‘제19회 태백산기전국종합대회’에서도 우승을 일구며 2관왕을 달성했다. 특히 태백산기 결승에서는 ‘제77회 전국중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기록한 동부초와 결승에서 맞붙었다. 올해 열린 두 개 대회에서 우승을 양분한 팀 간의 대결이었다. 반송초는 센터백 김주연(6학년, 센터백)을 중심으로 김동하와 김민주가 양날개를 펼치면서 동부초의 골문을 공략했다. 결국 반송초는 이날 혼자 9점을 기록한 김주연의 활약을 앞세워 22-13으로 승리했다. 소년체전 우승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만년 우승후보에서 2관왕을 기록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석현 감독은 ‘경험’을 꼽았다. “현재 6학년 선수들이 작년부터 경기를 뛰면서 손발을 맞춘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인다고 모든 팀이 반송초와 같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그 뒤에는 엄청난 훈련량이 있었다. 대회를 앞두고는 운동 시간을 더 늘렸다. 선수들은 아무리 힘든 훈련이라도 아무 말 없이 열심히 따라왔다. 그만큼 우승에 목말라 있었다. 코칭스태프의 열정, 그걸 따라오는 선수들, 본인들도 모르게 쌓인 경험이 모인 반송초는 진정한 강팀으로 성장했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다

이석현 감독

“내년에도 좋은 성적 이어가야죠”



Q. 반송초에 부임한지 얼마나 되셨나요.

올해 2월에 부임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든 점도 많았어요. 핸드볼부 인원이 적어 전력 보강을 위해 체육시간에 운동신경이 좋은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운동 시키기도 했어요.

Q. 부임 후 바꾸기 위해 가장 신경 쓴 것이 있다면요.

선수들이 연습 경기 땀 뻘뻘하다가 대회만 나가면 역전당하는 바람에 자신감을 많이 잃었죠. 그래서 항상 옆에서 파이팅 해주고 멘탈 잡아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Q. 창단 후 소년체전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전까지는 항상 ‘우승 후보’에 머물렀어요. 매년 한 곳 차이로 패해서 이번에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컸어요. 저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까지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협조로 한 달 정도 선수들이 학업을 쉬고 훈련에만 집중했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Q. 결승전에서는 극적인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결승전에서 선수들이 다들 긴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에게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설명했어요. 위치나 스텝과 같은 것들이요. 연습 때는 잘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후 선수들이 전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다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Q. 태백산기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2관왕을 기록했습니다.

선수들 개개인 욕심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선수들끼리 같이 보낸 시간도 많고, 연습 경기도 많이 하면서 자신감을 올렸죠. 그리고 작년부터 경험을 많이 쌓았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Q. 태백산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을까요.

결승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4강까지는 대진이 괜찮았는데 결승전에서 선수들이 풀어지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근데 선수들이 잘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Q. 바로 직전 대회에서 우승을 해 성적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우승해야지’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부담은 크게 없었어요. 선수들 실력이 괜찮았거든요. 대회 때 강리우, 김동하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걱정했지만 이겨내줘서 고마워요.

Q. 평소 학교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 편인가요.

정말 많이 도와주세요. 선수들이 학업에 시간을 많이 쓰는 편인데 수업이 끝나고 훈련시간도 늘려주셨어요. 그 부분이 이번 우승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Q. 올해 목표가 있을까요.

우승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핸드볼부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좋은 자원을 뽑아서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



세계선수권 우승 U-18 대표팀에 포상금 1억 1천만 원

대한핸드볼협회는 세계여자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18세 이하 국가대표 선수단에 포상금 1억1천만원을 지급했다. 최태원 대한핸드볼협회장은 제9회 세계여자청소년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단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태원 회장은 8월 17일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선수들과 함께 식사하며 감독 포함 22명 선수단 전체에 1인당 5백만원씩, 총 1억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 최신희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Z 플립 4를 선수단 전원에게 선물했다. 선수단은 우승 트로피와 우승 메달, 선수단 전원의 사인이 들어있는 유니폼을 최태원 회장에게 전달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자리에서 “무엇보다 유럽 팀들을 8경기 연속 이기고 우승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핸드볼의 미래가 밝다는 점을 확인했다. 선수들이 밝고 즐거운 모습으로 경기를 준비하고 좋은 성과를 냈는데 이게 바로 내가 평소 강조하는 ‘행복한 핸드볼’이다”라며 선수단을 격려했다.



SK 슈가글라이더즈, 창단 10주년 기념 팬미팅 행사 개최

SK 슈가글라이더즈는 6월 11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창단 10주년 기념 및 팬미팅 행사인 ‘와글와글! 슈글즈 팬 페스티벌’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 간 팬들과 함께해 왔듯 앞으로 10년도 팬들과 함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광명시민을 비롯한 약 200명의 팬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10주년 기념 행사, 선수들과 대화의 시간, 선수단 장기자랑, 애장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팬 사인화와 포토타임으로 마무리됐다. SK 슈가글라이더즈는 앞으로 팬 미팅 행사를 해마다 열고 팬들과 지속적인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남시청, ‘찾아가는 코칭 클래스’ 운영

하남시청 핸드볼팀이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동부초교, 남한중, 남한고교 운동부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엘리트 핸드볼 교실’을 운영했다. 핸드볼 꿈나무들에게는 핸드볼 기술을 코칭하고, 대학 진학을 원하는 선수들에게는 진학 상담을 진행했다. 학생 선수들은 “실업팀 선수들에게 1대1 코칭을 받아보니 그동안 부족한 부분도 알게 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남시청은 2020년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코칭 클래스’ 핸드볼 교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핸드볼코리아에는 인상적인, 그리고 반가운 기사가 많았습니다. 핸드볼리그의 프로화 선언, 사상 첫 외국인 감독 선임 제목만 봐도 심쿵. 드디어 인기스포츠로 가는 물꼬가 트이나 봅니다. 핸드볼이 농구, 배구에 비해 구기종목 중 인기가 처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잠재력만큼은 다른 인기스포츠 못지 않다고 자신합니다. 외국인 감독 지휘 아래 남녀 핸드볼의 국제대회 성적이 뒷받침된다면 다시 한번 우생순을 노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행보가 무척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묵묵하게, 차곡차곡 역사를 쌓아 마침내 통합우승과 MVP를 차지한 박미라 선수에게 축하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김예빈>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핸드볼코리아 7·8월호(vol. 59)에 대한 의견을
9월 30일까지 이메일(77basket@daum.net)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에게는 핸드볼 굿즈를 보내드립니다.
※ 경품수령을 위해 주소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IHF OFFICIAL GAME BALL



[Size3] H3X5001-BW [Size2] H2X5001-BW
Synthetic Leather / Hand Stitched / Latex Bladder

한국 수입, 판매원
(주)믹스스포츠
070-4367-1482



FILA